



아모레퍼시픽
일본·아시아
럭셔리뷰티 공략
L1



Life

美 스탠퍼드
바이오 상업화
성공법
L2



“힘들다 말 못 하는 남성들… 혐오 아닌 돌봄의 언어 필요해”



새벽을 여는 사람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이 한 대표

‘이대남’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낙인이자 혐오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10대들의 우경화와 백래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남성들의 목소리는 양극단으로 흩어진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10대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메트로경제 신문〉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간에서 2017년부터 단체를 꾸려 남성성과 성평등을 고민해 온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하 남함페)’ 이한 대표를 만났다. 초·중·고교 교실부터 군부대, 직장, 노인 단체까지 발이 닿는 곳마다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 온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 남성들의 혐오와 고립에 대해 단호하게 진단했다. 개인의 인성 탓으로 돌리거나 세대 전체를 이상하게 낙인찍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 연대의 파라미터 말바다에 있는 이들은 ‘남자 맞아?’, ‘운동도 못하네’ 같은 비난을 받으며 남성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아요. 이 폭력적인 위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생존 방식으로 여성 혐오를 택하는 거죠. ‘나 여자 아니야, 재돌보단 나야’ 라면서요. 문제는 이들이 힘들다고 말하거나 기댔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약한 소리를 하면 남성 집단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워 말을 못 해요.”

그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아이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편견과 사뭇 달랐다고 회상했다. 성평등 교육을 조롱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처음엔 깔려거리거나 무서울까 봐 걱정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다들 기가 막 죽어 있어요. 방치되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돼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인생 끝났다’며 자책하던 아이들도 이제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 설명해주면 깊이 반성해요. ‘이런 교육을 좀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하죠. 10대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혐오 표현을 쓰다가도 어른이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해주면 수긍하고 멈춥니다. 다만 학교가 갈등을 피하려 무균실처럼 침묵하니 아이들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남성들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설명할 언어가 없는 현실이 나쁜 언어를 낳았다고 짚었다.

“누군가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너만 힘들냐, 술이나 마시자’로 끝나버리면 고통은 언어화되지 못해요. 그 공백을 파고든 게 정치인들이었죠. ‘너 억울하지? 페미 때문이야’라며 혐오의 언어를 주여준 겁니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페미니즘모임 대표가 메트로경제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성진 기자 ksj@

2017년부터 성평등 외친 활동가
교실·군부대 등 찾아 성평등 교육
‘남성성 위계’ 속 자책·고립 심화
생존방식으로 여성 혐오 선택해

고통 설명해줄 페미니즘 언어 필요
대화 프로젝트 ‘어색한 사이’ 진행
젠더간 속도·시차 좁히는 다리로

무균실 교실 아닌 치열한 소통 필요
고통·불안 꺼내놓고 새 길 찾아야

다. 20대 여성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극우화되지 않은 건 그들의 처지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네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라고 말해주는 페미니즘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언어가 주어져야 해요. ‘너도 돌봄이 필요하고, 스스로 겪는 괴로움은 개인이 못나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라고요.”

남함페가 진행 중인 ‘어색한 사이’ 프로젝트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어색한 사이 프로젝트는 페미니즘에 관심은 있지만 또래 남성 집단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신원을 받아 일대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다. 9월 현재까지 10여 명이 프로젝트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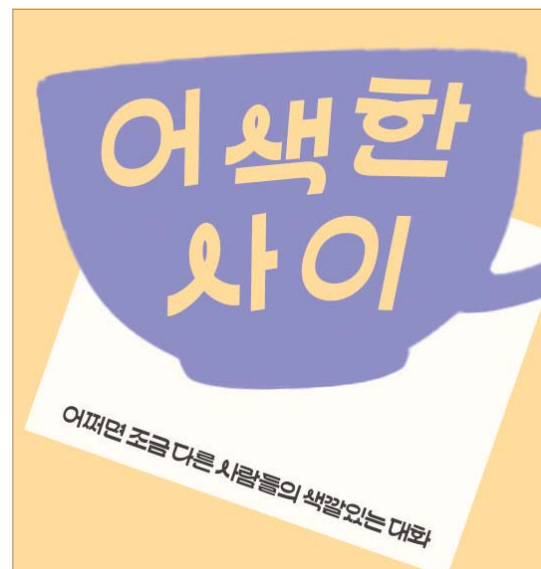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면 감정이 앞서 싸움이 되기 쉬운데, 제삼자인 제가 중간에 서면 방어기제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애인에게 이런 말이 불편했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맥락이었을 것 같다’고 조율해 주죠. 남성과 여성 사이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시차를 좁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학교와 교육 현장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백 명이 모인 강당 강의나 컴퓨터 화면만 켜두는 방송 교육으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에게 성평등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엔 달칵해요. 10대 때는 차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우리친장이나돌봄노동같은현실을 짚어주고페미니즘의본래역사를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여요.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건 많은데, 정작 교실에서 제대로 질문하고 대



성평등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한 대표.



페미니즘 이야기를 나누는 ‘어색한 사이’ 프로젝트. /남함페

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교실이 갈등을 피하려 무균실처럼 굴면 아이들은 법정이나 광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 치열하게 묻고 답해야 해요.”

인터뷰 말미, 그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사를 접할 남성들을 향해 안타까움과 애정이 섞인 말을 남겼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와 고독사의 다수가 남성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관계망이 취약하며, 아프다는 말을 삼키다 극단으로 내몰린 결과예요. 남성들이 마주한 그 깊은 불안과 고통을 함께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고립 속에서 버티지 말고,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이정후, 샌디에이고전 4타수 1안타…시즌 타율은 0.279 유지
▲박보검, KPGA 투어 KB금융 챔피언십 우승…데뷔 첫 메이저 정상
/사진 뉴시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로베르트 모레노…“한국 국민, 대표팀에 자부심 갖게 될 것”
▲손흥민, 캔자스시티전 최전방 공격수…로스앤젤레스FC 2연승 도전 선봉장

▲백승호, 교체 출전 4분 만에 결승골…버밍엄은 2-1 역전승
▲‘2024 파리 패럴림픽 금’ 조정두, 2026 세계선수권 10m 공기권총 2관왕